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오 은 정¹ · 오 미 정²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¹, 영산대학교 간호학과²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Acculturative Stress on Parenting Efficacy in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Eun-Jung Oh¹ · Mi-Jung Oh²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Youngsan University, Yangsan, Korea¹

Department of Nursing, Youngsan University, Yangsan, Korea²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 parenting efficacy of Vietnamese married migrant women.

Methods: A total of 130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were recruited from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U-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f a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21.0 program.

Results: The scores of parenting and acculturative stress level were 2.62 and 2.87, parenting efficacy level was 2.98. The Acculturative stress exper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renting stress ($r=0.547$, $p<0.001$), Parenting stress experien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arenting efficacy ($r=-0.486$, $p<0.001$), and, acculturative stress experien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arenting efficacy ($r=-0.460$, $p<0.001$).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cculturative ($t=-2.891$, $p=0.005$) and parenting stress ($t=-3.818$, $p<0.001$) showed a significant number of factors that explain parenting efficacy. The model included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of acculturation stress and parenting stress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24.966$, $p<0.001$), and had a descriptive result of 28.5%.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mediation measures such as substantial, cooperative, and systematic parenting programs for women in Vietnam to promote regional community support.

Key Words: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parenting stress, acculturative stress, parenting efficacy

서 론

*이 논문은 오은정(지도교수: 오미정)의 석사 학위 논문의 축약임.

교신저자: 오미정, 경남 양산시 주남로 288

영산대학교 보건의료대학 간호학과

전화번호: 055-380-9365, 팩스번호: 055-380-9305

E-mail: mjoh@ysu.ac.kr

접수일자: 2018년 3월 5일, 심사일자: 5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5월 9일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국가적 인구 이동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다인종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2015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21,300

건(7%)으로 이 중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이 14,700건으로 전체 국제결혼의 절반을 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베트남이 4,651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 4,545명(31.0%), 일본 1,030명(7.0%) 순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2011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중국이 가장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베트남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Statistics Korea, 2015).

이처럼 우리사회의 결혼이주여성의 양적증가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의 증가로 점차적으로 부각되어지고 더불어 사회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문제, 양육정보 습득문제, 문화적 양육차이, 양육지지체계의 부족 등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겪게 된다(Lee & Choi, 2012).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언어발달지체, 심리정서문제, 사회성 부족, 학교 부적응 및 학업성취실패 등 여러 부분에서 자녀의 성장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증가된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Lee et al, 2012).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녀의 양육문제가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여 부모역할수행과 관련된 낮은 자신감을 보이고, 결국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양육효능감이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 Jung, 2011). 또한 이들의 한국 사회로의 적응에 문화변용스트레스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화변용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되었다(Kim, 2015).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양육행동으로 사회적지지(Kim & Kim, 2015), 자녀 문제 중심적 대처(Choi, 2015), 양육효능감 향상(Park, 2014)을 중재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양육효능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녀양육 방법으로 보고하고 있다(Kim, 2015).

양육효능감이란 적절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양육스트레스, 문화변용스트레스(Lee & Lee, 2010) 등이 있다.

최근까지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지지(Rah, 2011), 배우자의 지지(Kim & Lee,

2009), 사회적지지(Song et al, 2007), 양육스트레스(Kim, 2014), 문화변용스트레스(Kim et al, 2015)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들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자녀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이라는 전환적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사회를 떠나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차이와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사회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킴으로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상의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이들이 겪는 이민국에서의 결혼과 출산, 사회의 적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의 영향을 동시에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출신국이 다양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혼합된 표본으로 연구결과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출신국에 따른 다양한 문화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양육효능감에 있어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와 타 문화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화변용스트레스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출신국 구성비로 보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고(Statistics Korea, 2016), 이들은 다른 국가의 이주여성에 비해 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낮고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가 많으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교류도 원활하지 못하여(Sul & Yoon, 2008) 양육효능감 수준이 다른 출신국의 결혼이주여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Lee, 2010), 이들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문화변용스트레스,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문화변용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문화변용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문화변용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문화변용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U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U시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은 한글어로 된 측정도구를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모두 가능한 이중 언어자가 베트남어로 변환하였다. 문화변용스트레스는 영어로 된 측정 도구를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이중 언어자에게 번역을 의뢰한 후 다른 이중 언어자가 역번역하도록 하였다. 한글로 된 문화변용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이중 언어가 가능한 이중 언어자에게 베트남어로 변환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된 두 가지 설문지를 준비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한국 거주기간, 결혼기간, 배우자와 연령 차이, 남편의 직업, 경제적 수준, 한국어 실력을 포함한 9문항이다. 경제적 수준은 ‘매우 잘 산다’에 5점, ‘매우 가난하다’에 1점을 부여하였다. 한국어 실력은 ‘아주 잘 한다’에 5점, ‘아주 못 한다’에 1점을 부여하였다.

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 (1983)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를 김현미(2004)가 번안, 수정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어머니의 고통(Parental Distress),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그리고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Child)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가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값이 0.95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5이었다.

3) 문화변용스트레스

문화변용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Sandhu와 Asrabadi (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한국어로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하위영역은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문화적 충격, 두려움, 죄책감,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등을 포함한다.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가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변용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값이 0.94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6이었다.

4)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ibaud-Wallston과 Wandersman (1978)가 개발한 양육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SCS)척도를 이애란(2009)이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영역 양육효능감 6문항, 만족감 4문항으로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가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값이 0.79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78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16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소, 가족문화센터 등에서 협조를 받았으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관계망을 통해 개별적으로 소 개받은 후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병행하였다.

U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정확한 모집 단 원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으로 표 본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크기는 G 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 수는 123명이었고 1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답하기 편안한 대로 한국어나 베트남어로 제공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연 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회수하였으며 총 130부의 자료 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Y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 승인(YSUIRB-2016 09-HR-012-01)을 받은 이후 시행하였고, 연구기간 동안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연구변수의 수준은 평 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문화변용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 고, 사후검증에는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문화변용스트레 스,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 cient로 분석 하였다.

4)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 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6~31세가 77명(59.2%)으로 가장 많았 다. 한국의 거주기간은 7~8년 32명(24.6%), 5~6년 26명(20 %), 결혼기간도 7~8년과 9~10년이 각각 26명(20%), 3~4 년 25명(19.2%)순이었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26명 (36.2%), 중학교 졸업자 38명(29.2%)순이었으며 배우자와 의 나이 차이는 16~20세 56명(43.1%), 11~15세 39명(30

%)이었다. 경제적 수준 81명(62.3%)과 한국어 실력 82명 (63.1%)은 '보통이다'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문화변용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의 정도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인식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점수범 위 1.36~4.44점으로 평균점수는 2.62점 이었고, 문화변용스 트레스의 점수범위 1~5점으로 평균점수는 2.87점 이었다. 양육효능감은 점수범위 1~5점으로 평균점수 2.98점 이었다 (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문화 변용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문화변용스트레스는 한국어 실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5.420$, $p=0.006$) 사후검증결과 한국어를 잘하는 집단과 못하는 집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교육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837$, $p=0.041$), 사후검증 결과 교육기간에 따른 집단 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4. 일반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문화변용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문화변용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 간에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r=0.547$, $p<0.001$). 양육스트레스와 양 육효능감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r=-0.486$, $p<0.001$), 문화 변용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에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r=-0.460$, $p<0.001$) (Table 4).

5. 양육효능감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양육스 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t=-3.818$, $p<$

0.001)와 문화변용스트레스($t=-2.891$, $p<0.005$)는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공차한계(tolerance)는 0.701로 0.10보다 훨씬 컸으며 분산팽창

지수(VIF)는 1.426로 10보다 훨씬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문화변용스트레스의 두 독립변수를 투입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4.966$, $p<0.001$) 모형의 설명력은 28.5%이었다. 또한 Durbi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M±SD
Age (year)	20~25	27	20.8	28.36±3.922
	26~31	77	59.2	
	32~38	26	20.0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year)	1~2	21	16.2	5.82±2.946
	3~4	25	19.2	
	5~6	26	20.0	
	7~8	32	24.6	
	9~10	21	16.2	
	≥11	5	3.8	
Marriage period (year)	1~2	23	17.7	6.00±3.160
	3~4	25	19.2	
	5~6	22	16.9	
	7~8	26	20.0	
	9~10	26	20.0	
	≥11	8	6.2	
Education	≤6	33	25.4	8.82±3.656
	7~9	38	29.2	
	10~12	47	36.2	
	≥13	6	4.6	
	lack of education	6	4.6	
Age gap (year)	≤5	3	2.3	15.72±4.764
	6~10	18	13.8	
	11~15	39	30.0	
	16~20	56	43.1	
	≥21	14	10.8	
Husband occupation	Yes	125	96.2	
	No	5	3.8	
Family economic level	Very poor	4	3.1	
	little poor	27	20.7	
	average	81	62.3	
	little good	8	6.2	
	very well	10	7.7	
Korean skills	Very Poor	0	0.0	
	little Poor	34	26.2	
	Average	82	63.1	
	little Good	14	10.7	
	Very good	1	0.8	

Table 2. Parenting Stress, Acculturative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Level (N=130)

	Minimum value~Maximum value	Mean±Standard Deviation
Parenting stress	1.36~4.44	2.62±0.580
Acculturative stress	1.00~5.00	2.87±0.783
Parenting efficacy	1.00~5.00	2.98±0.646

Table 3. Differences in Parenting Stress, Acculturative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Variable	Category	Parenting stress		Acculturative stress		Parenting efficacy	
		M±SD	t/F (p)	M±SD	t/F (p)	M±SD	t/F (p)
Age (year)	20~25	2.68±0.543	0.153	2.88±0.741	0.805	2.85±0.682	1.472
	26~31	2.61±0.587	(0.858)	2.81±0.774	(0.449)	2.98±0.578	(0.233)
	32~38	2.60±0.616		3.04±0.855		3.15±0.782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year)	1~2	2.69±0.591	0.612	2.79±0.800	0.724	2.92±0.825	1.213
	3~4	2.69±0.458	(0.691)	3.02±0.716	(0.607)	2.80±0.497	(0.307)
	5~6	2.61±0.451		3.01±0.849		2.92±0.660	
	7~8	2.58±0.637		2.85±0.749		3.19±0.411	
	9~10	2.63±0.766		2.71±0.852		3.00±0.800	
	≥11	2.24±0.432		2.56±0.673		3.10±0.839	
Marriage period (year)	1~2	2.71±0.566	0.834	2.78±0.819	1.038	3.00±0.785	1.578
	3~4	2.66±0.451	(0.528)	3.12±0.655	(0.399)	2.77±0.473	(0.171)
	5~6	2.62±0.464		3.02±0.836		2.85±0.538	
	7~8	2.46±0.504		2.80±0.720		3.10±0.482	
	9~10	2.72±0.801		2.74±0.875		3.20±0.788	
	≥11	2.43±0.654		2.66±0.768		2.88±0.781	
Duration of training (year)	≤6	2.83±0.468	2.443	3.19±0.767	2.665	2.79±0.520	2.837*
	7~9	2.62±0.691	(0.067)	2.70±0.928	(0.051)	3.07±0.725	(0.041)
	10~12	2.48±0.512		2.81±0.631		3.02±0.601	
	≥13	2.48±0.824		2.70±0.778		3.55±0.875	
Job	Yes	2.57±0.647	0.555	2.90±0.832	0.132	3.02±0.698	0.372
	No	2.65±0.538	(0.458)	2.85±0.757	(0.717)	2.95±0.616	(0.543)
Age gap (year)	≤5	2.39±0.573	0.480	2.36±0.774	0.626	2.83±0.152	0.372
	6~10	2.71±0.693	(0.751)	3.07±0.527	(0.645)	2.96±0.923	(0.828)
	11~15	2.67±0.572		2.87±0.738		2.99±0.452	
	16~20	2.56±0.607		2.84±0.933		3.04±0.710	
	≥21	2.68±0.318		2.84±0.500		2.81±0.491	
Husband occupation	Yes	2.62±0.584	0.058	2.87±0.788	0.060	2.99±0.649	0.622
	No	2.68±0.499	(0.810)	2.84±0.699	(0.938)	2.76±0.568	(0.432)
Family economic level	Very poor	2.25±0.567	0.422	2.23±0.987	0.823	3.35±1.239	0.491
	Little poor	2.62±0.578	(0.792)	2.95±0.871	(0.513)	3.03±0.489	(0.742)
	Average	2.64±0.575		2.87±0.718		2.94±0.647	
	Little good	2.65±0.760		2.79±1.007		3.09±0.978	
	Very well	2.62±0.61		2.99±0.814		2.94±0.462	
Korean skills	Can not ^a	2.74±0.449	1.829	3.14±0.754	5.420**	2.82±0.646	1.460
	Usually ^b	2.62±0.604	(0.165)	2.86±0.771	(0.006)	3.05±0.608	(0.236)
	Well done ^c	2.39±0.684		2.35±0.67	a>c	2.99±0.830	

*p<0.05, **p<0.01

Watson는 1.915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2.67점으로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Park와 Jung (2007)의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직접적인 자녀 양육 행위에도 제한을 받음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부

Table 4.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Correlation Between Cultural Transformation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N=130)

	Age (p)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p)	Marriage period (p)	Duration of training (p)	Age difference (p)	Family economic level (p)	Parenting stress (p)	Acculturative stress (p)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0.459** (<0.001)	1						
Marriage period	0.436** (<0.001)	0.934** (<0.001)	1					
Duration of training	-0.181* (0.044)	-0.072 (0.426)	-0.017 (0.849)	1				
Age difference	-0.284** (0.001)	-0.149 (0.091)	-0.149 (0.091)	-0.063 (0.490)	1			
Family economic level	0.001 (0.989)	-0.183* (0.037)	-0.184* (0.036)	0.212* (0.018)	0.117 (0.186)	1		
Parenting stress	-0.037 (0.674)	-0.109 (0.220)	-0.080 (0.367)	-0.253** (0.005)	-0.038 (0.667)	0.050 (0.576)	1	
Acculturative stress	-0.001 (0.991)	-0.084 (0.344)	-0.103 (0.246)	-0.152 (0.091)	-0.053 (0.551)	0.054 (0.542)	0.547** (<0.001)	1
Parenting efficacy	0.118 (0.180)	0.125 (0.155)	0.122 (0.166)	0.162 (0.073)	0.007 (0.938)	-0.062 (0.485)	-0.486** (<0.001)	-0.460** (<0.001)

*p<0.05,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Parenting Efficacy

(N=130)

Variables (1=reference)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4.616	0.236		19.542	<0.001		
Parenting stress	-0.383	0.100	-0.345	-3.818	<0.001	0.701	1.426
Acculturative stress	-0.216	0.075	-0.261	-2.891	0.005	0.701	1.426

$R^2=0.285$, Adjusted $R^2=0.274$, $F=24.966$, $p<0.001$.

가될 수 있음을 보고 하였고, Roh (2011)의 국적별 선행연구에서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중국, 필리핀, 태국 국적을 가진 여성들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보건소, 각계 등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양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문화변용스트레스의 수준은 2.87점으로 중간점수보다 높았으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지원 단체에서 한국인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주선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이해하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하다. 베트남 이웃과의 비공식적인 유대관계, 베트남 친구의 여부, 모국인과의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가 문화변용스트레스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Yang et al., 2009). 또한 시댁과 친정가족과의

네트워크와 남편의 만족도가 문화변용스트레스를 낮추는 보고가 있다(Roh, 2004).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단일 범주로서 보기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보다 초점을 가지고 문화적응과정과 이에 따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입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육효능감 수준은 2.98점으로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양육효능감, 즉 부모역할 수행에 대해 어머니 스스로 긍정적인 기대와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자녀에게 제공해 주고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며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Oh, 2011).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현재 U시에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와 보건소, 출입국사무

소 등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교육과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취업 및 취미생활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자녀양육과 자신감이 점차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중간 이상 점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생활에서 자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녀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의 정착을 의미하며 자녀가 희망이고 자녀의 문제는 곧 자신의 문제로 여겨 자신이 한국사회 시민으로서 정착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 결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Kim et al., 2009)과 결혼이주여성(Roh, 2011)의 선행연구에서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한국어실력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으로 양육 또한 사회 적응 시간과 비슷함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거주기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중간층이라고 판단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전 출신국의 경제생활 수준을 고려한 판단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주관적 경제적 여유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지장이 없는 한국어 실력이 보통수준이 많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지역사회의 여러 지원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지지체계를 보다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이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변용스트레스 차이는 한국어 실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가 잘하는 경우에 비해 문화변용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가족 내에서 73.81%가 한국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 구사능력 등 의사소통 능력이 타 출신국 결혼이주여성 중 가장 뒤떨어지며 사회적 적응도 매우 낮다고 보고 한 바 있다(Lee, 2014). 미국인 한국인 대상의 선행연구(Sin & Kim, 2006)에서도 언어적 장애가 문화변용스트레스를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어 능력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상에서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이민국 생활에서의 불편감이 줄어들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라는 점에서 한국어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이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즉, 한국어 구사능력이 좋은 경우 문화변용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한국어프로그램들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한국 거주기간, 배우자의 나이 차이, 경제수준이 양육효능감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자녀양육방법에 따른 자신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과 관련되는 변수로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는(Oh, 2011) 연구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선행연구(Lee, 2014)에서 평균 교육연수가 8~10년 정도로 결혼이주여성 중 가장 낮기 때문에 학습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한국어 구사능력 등 의사소통 능력을 여타 출신 결혼이주여성 중 가장 뒤떨어지며 이로 인하여 자조집단의 참여 역시 가장 저조하고 양육효능감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을 개별적 수준에 맞는 양육수행 교육을 배우자와 함께 교육할 수 지원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또한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대안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문화변용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이주자들은 타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매우 높은 문화변용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 자녀 출산과 양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본인이 충분히 적응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으며(Lee & Choi 2012), 또한 문화적 차이로 문화변용스트레스를 겪고 한국어 소통 미흡으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여전히 한국사회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여성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녀 양육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또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요소는 입장에서 국가와 기업, 민간단체, 연구기관에서 일치된 관심과 애정을 표해야한다. 그러나 기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 한국문화소개, 한국 음식 소개 위주의 내용구성이 대부분으로 자녀들의 교육과정과 한국사회에서의 양육문화나 양육의 지식습득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

므로 양육에 관한 프로그램 제공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을 더욱 증진시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어를 비롯한 문화와 정서적 차이에 대한 교육은 물론 양육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Kim과 Baek (2015)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무기력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감정은 결국 아동의 양육에 영향을 주면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Park과 Lee (2012) 연구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양육효능감은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각계에서는 이들을 위한 더욱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민국에서의 사회적응과 자녀양육의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겪어지게 되므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실질적 접근을 위한 통로라고 사료된다.

문화변용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 자녀의 양육과 출산은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주로 여성이 역할 담당이지만 양육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Kim et al., 2009).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본국의 양육문화와 한국의 양육 문화 간의 갈등을 경험하지만 자녀양육은 생애과업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들의 양육효능감은 높임으로써 적극적인 자녀양육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변용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완화시켜줄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가지고 있는 양육효능감이 자녀양육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교육방식만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 나라별 자녀교육 방식의 긍정적인 면을 파악해 한국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효율적인 양육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문화변용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수준은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가 문화변용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양육효능감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화변용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양적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음적 상관관계, 문화변용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서도 음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상자가 받는 양육효능감 영향의 결정요인을 파악한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효능감이 기대보다 높은 것으로 이는 부적응과 차별 속에서 불행하게 산다는 고정관념과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결하고 있는 기존의 태도들이 반드시 적절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대상자들은 지역사회 보건소나 여성문화센터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이러한 사회적 지지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된 여성을 포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표본추출을 일 지역에 국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여러 출신국이 혼합된 표본을 통한 선행연구가 대부분인 상태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과 관련된 그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Jung HY, Jung OB.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n the School Readiness Levels of Preschool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Korean J Human Development* 2011;18(22):277-97.
- Kim NH, Baek IK. The Effect of Child Rearing Self-Efficacy

- and Parenting Str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on Their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and Social and Peer Competence. *International J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5;19(1):365-84.
- Kim DH, Lee KE. The Study on Path Analysis for Parenting 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at Multi-Culture Family.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09;14 (2):77-98.
- Kim YS, Kwon MK. Nurse's Parenting Stress. *J Acad Soc of Parent Child Health* 2010;13(2):86-94.
- Kim ES, Kim DH.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Perceived Health Status of Married Immigrant Women. *J Korean public Health Nurs* 2015;29(2):344-53.
- Kim JH, Oh JA, Yoon CM, Lee JH. Married Immigrant Women's Child-Rearing Experiences Including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J Acad Soc of Parent-Child Health* 2009;12(1):46-60.
- Kim HJ, Kim JM.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mproving Parenting 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 2015;33(2):135-48.
- Kim MH.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 Korean Asso for Person with Autism* 2015;15(2):49-66.
- Lee SM, Lee KA. The impact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y on parenting behavior. *J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0; 17(3):71-105.
- Lee SG, Park HS, Rho YH, Rhee CW. The Mediated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Cultural Capital on School Adaptation fo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s of Positive Self-concept. *J Korean Soc of Child Welfare* 2012;38:235-64.
- Lee JM, Choi YH. Effects of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Child-rearing Knowledge, Child-rearing Stress, and Child-rearing Self-efficacy of Immigrant Pregnant Women. *Korean Soc of Public Health Nurs* 2012;26(3); 561-71.
- Lee EA. Urban Marriage Migrant Women's Role of a Mother and Their Identities: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Child Education. *Korean Asso of Women's Studies* 2013;29(3); 115-46.
- Lee AR. A Structural Model of Caring Behavior of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J Korean Acad of Nurs* 2009;39(5); 673-82.
- Park SE, Rhe CW.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Immigrant Women's Parenting Efficac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Korean J Family Social Work* 2012;37; 369-84.
- Park JH, Jung JK. Acculturation and Identity of Immigrant W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Korean Psychology Asso* 2007;12(4):395-432.
- Sul DH, Yoon HS. Socioeconomic adaptation and welfare policy for immigrant women on marriag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countries of origin. *Korean Soc Securit Studies* 2008;24(2):109-33.
- Song MH, Song YS, Kim YJ.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elf-Efficacy in Early Childhood Mothers. *J Korean Open Assoc for Early Education* 2007;12(5):165-83.
- Shin HS, Kim MY. Acculturative Stress and Current Perception of Stress in Korean Immigrants. *East-West Nurs Research institute* 2006;12(1):43-56.
- Yang OK, Song MK, Im SY.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of internationally married female migrants in Seoul. *Korean Asso of Family Relation* 2009;14(1):137-68.